

깊은 영혼치유의 비밀을 알려준 빌립보서

-복음으로 여는 빌립보서-

하박국 3:17-18, 빌립보서 4:4-7

정 윤 돈 목사님

* **합3:17-18**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다

* **빌4:4-7**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 땅끝까지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보좌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민족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오직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이유와 절대미션과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다. 이번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해야겠다. 구약의 맥추절은 보리수확을 마친 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했다. 오늘도 우리도 같다. 우리 힘으로 돈을 버는 것 같으나 사실 우리의 건강과 만남과 기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신명기 8장 18절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이다. 우리는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믿음으로 시작해야겠다.

저는 20대 후반까지 해외에 간 적이 없다. 그러다 어느 날 선교가 마음속에 담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로 인도하시고 전 세계로 나가게 하셨다. 제 영혼 깊이 선교가 담겼기 때문이다. ‘참사랑교회와 우리 교단이 진짜 전도해야겠다’하는 마음이 담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진짜 제자를 붙여주신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지역과 세계를 복음화할 제자들이 울 줄을 믿는다. 우리는 우리 후대를 세계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언어가 중요하다.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제 전 문성과 공부에 목숨 걸어야 한다. 저도 시간나면 계속 언어공부를 한다. 목숨 걸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 새벽을 깨워서 공부해라. 우리가 악기도 하고 공부도 하는 이유가 세계복음화다. 깊은 영혼의 치유를 받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미션을 찾아야 한다. 제자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관심 없으면서 먹고 살기 위한 생각만 가득하다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결론내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되어진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영혼 깊은 곳에 상처와 중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때 그게 나온다.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응답은 안 오고 힘겨워 하다가 인생이 끝난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영혼 깊은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박살내시기 바란다. 그렇지 않

으면 중요한 때에 응답의 문을 나의 상처로 인해 다 닫는다.

오늘 본문에서도 빌립보교회가 부흥하는데 두 여인이 서로 싸운다. 구원은 받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 수는 있는데 교회에서 보기 싫은 사람과는 화해를 못 한다. 영혼 깊은 곳에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다.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는데 집에서 부인과 남편은 싫다. 축복과 시험거리는 같이 오는데,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중요한 응답을 받지만 상처는 중요한 때에 불신앙을 선택하게 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깊은 영혼의 문제를 속히 치유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 또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기도 어렵다.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이 오지 않는다. 물탱크에 물이 차 있어도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온다. 영적 문제를 치유받지 않으면 응답이 이미 와있는데도 목말라 죽는다. 거기 매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 인간적인 동기와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 문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깊이 가지지 않으면 다 마귀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된다’며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다. 사실은 진짜 전도하고 선교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중학교 때부터 책상에 ‘미래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붙여놔었다. 여러분이 진짜 미래 기업과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고 싶다면 특별한 건 하지 않더라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현장에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깊은 영혼을 치유하지 않으면 응답을 다 발로 차버리게 된다. 그리고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바울은 감옥에서 현장에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는데, 디모데와 같은 충성된 제자가 생기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시길 바란다. 교회와 성도와 후대를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답을 알았을 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고백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상태, 평안이 넘치는 상태, 이것이 깊은 영혼의 치유를 받은 상태이다. 성도들에게 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얼굴에 미소가 있는 분이 있다. 저는 이걸 ‘복음적 미소’라고 부른다. 결론 난 미소다. 이분은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다. 복음을 깨달았다는 뜻이다. 복음으로 치유받은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복음으로 영혼 깊은 곳이 한 번이라도 만져진 사람은 그 미소가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분은 복음적인 감사의 미소가 없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결론 낸 모습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에게는 회색지대가 없다는 말이 있다. 천국 아니면 지옥, 하나님 아니면 마귀다.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란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포로되고 노예, 속국되면 결국 이 땅에서 노예의 신분이다.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시길 바란다. ‘치유받게 하옵소서’, ‘내 믿을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믿음에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달라보인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며 인도하신다.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증인이 된다.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 증인으로 서야지, 설명하는 설교자로 서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아 증인이 되시길 바란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상관없다. 제가 소록도 문둥병자들을 만났는데, 얼굴이 다 문들어졌는데 성경을 암송하고 항상 기뻐하며 찬양하더라. 문들어져도 오직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삶이다. 이분들에 비해 여러분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이 얼마나 빼앗기고 매 맞고 병들어야 감사하시겠나.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결론내고 응답을 누리고 나뉘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완전히 치유를 받은 상태이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한다. 바울은 39대를 맞고 옥에 갇혔음에도 어떻게 해야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바른 복음을 전할지 고민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그 중심을 가져야 한다. 인도만 가도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를 누리면서 제자를 세우셔야. 빌립보서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빌립보교회 안에서 중요한 여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인간적 갈등으로 전도를 막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인간관계와 잘못된 체질과 태도, 영적 상태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다. ‘빌립보’라는 도시의 명칭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라서 붙였다. 빌립보는 당시 마케도니아에서 가

장 크고 중요한 성이었고 당시 로마의 퇴역장교들이 이주해 오면 특별히 로마시민권을 주는 도시였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따라 빌립보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다.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자주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다. 자주 옷감은 귀족이나 왕족이 쓰는 재료였던 만큼 로마군인들이 많이 있었다.

1. 빌립보교회가 세워진 과정과 빌립보교회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먼저 빌립보교회가 세워진 과정이다.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인데, ① 사도 바울은 스테반 집사의 순교현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이때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다.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청년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이다. ② 그 후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을 위해 대제사장에게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다. ③ 충격을 받은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와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내게 된다. ④ 그러던 중 바나바의 소개로 안디옥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처럼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여행을 떠난다. 이 기간동안 큰 역사를 이루고 다시 안디옥교회로 돌아온다. ⑥ 그리고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따로 제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드로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빌립보가 속해 있는 마케도냐에서 한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고 네압볼리 항구에 도착하여 빌립보 성으로 간다. ⑦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루디아와 접치는 여종, 그리고 간수를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세 사람과 함께 세운 교회가 빌립보교회다.

(2) 그런데 빌립보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①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두 여제자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깊은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드러나고 분열하게 된다. 박수를 칠 때에도 두 손이 필요하듯이 복음의 소리도 두 사람이 필요하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그리스도로 결론나서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바란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들어가 서로 사역하며 그리스도가 주인, 왕이 되도록 치유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공동체가 중요하다. 많은 중간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빌립보서 4장 2절에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들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다. 오래된 창세기 3장의 깊은 문제로 인해 놀라운 응답들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는데 진정한 영적 치유사역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과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을 잘 정리한 후 상대에 맞게 잘 증거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② 두 번째 문제는 자신들의 지식과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로마군과 가족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었다. 그 결과 교회는 분열되었고 성도들은 기쁨과 행복이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깊은 영혼의 문제를 치유 받을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다.

2. 깊은 영혼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깊은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만져줘야 한다. 한 번이라도 진짜 은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갈 것이다. 말씀이 무의식과 잠재의식, 영혼 깊은 곳까지 말씀이 녹아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의 체질이 바뀐다. 그걸 보고 거듭났다고, 새 것이 되었다고 한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복음을 깨달은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세상 것들을 끊어버리고 거룩해져야 한다.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받는 게 그리스도인의 언약의 여정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것을 ‘성령의 유효하심’이라고 말한다. 물에 소금을 넣었을 때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맛이 달라지듯이 우리도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우리의 빛과 맛이 달라진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사탄은 지금도 각종 흑암, 혼돈, 공허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빼앗아 가고 있다. 그 결과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분열, 갈등, 교만, 시기, 질투, 우울증, 분열증, 각종 중독과 타락과 집착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있다. 성경은 이걸 ‘쓴 뿌리’라고 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 달라지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러한 깊은 영혼의 문제를 치유 받을 수 있는 절대미션과 치유의 말씀을 주고 있다.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비밀이다.

(1)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인도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다.

바울이 봤을 때는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바꿀 수 없지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

(2)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정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내가 손해 보는데도 선택할 수 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이해할 수 있다. 원수까지도 주리고 목마르면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다.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한다. 그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이다.

(3)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복음의 은혜받은 사람은 자기를 낮춘다. 누군가 자존심을 굽어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는다. 그게 성령의 열매다. 잘못된 상대방이 했는데 오래 참는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죽기까지 복종한다. 복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따르는 게 복종이다.

(4) 꽃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해라. 꽃대를 향해 달려가라. 교회도 마찬가지다. 제자를 찾아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은혜 받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누군가 여러분을 방해하면 그냥 피해서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가라.

(5)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로마 군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 와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그게 아니다. 천국시민권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 바란다.

(6)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조건이나 이유가 없다. 어떤 것은 기뻐하고 어떤 것은 안 기뻐하는 게 아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을까? 꽃대가 있고 내게 미리 보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내게 실상이기 때문이다. 이면계약, 언약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 상관없이 기쁘다. 영혼의 깊은 것을 치유하는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란다.

(7) 넓은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릇이 커야한다. 이 사람, 저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온전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지키고 연약한 사람들을 품고 치유하여 거듭나게 하라.

(8) 이러한 말씀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간구해야 한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과 평안이 솟아올라 넘칠 때까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염려해서는 안 된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이때 4장 7절에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있다면 그 사람의 깊은 영혼의 상처는 치료된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고 경제와 가정과 교회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응답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복음집중과 말씀집중 안에서 영혼 깊은 곳까지 완전치유를 받아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병들고 상처난 우리에게 깊은 죄악과 영적문제와 연약함이 많지만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에 못 박혀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히 거듭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 소금으로 현장에서 많은 제자를 찾아 양육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